**Project2 중간보고**

|  |  |  |  |
| --- | --- | --- | --- |
| 조 | 1 | Data | 부동산 데이터, 뉴스 빅데이터 |
| 사용 예정 데이터 | | | |
| a. BIGKINDS Open API  - 뉴스 통합 분류체계: ‘경제>부동산’ 분류 데이터  -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부동산 뉴스의 패턴 파악하기  b. 공공데이터 포털  - 2013년도 9월부터 2020년도 8월까지의 7개년도 국토교통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실거래 상세 자료  - (a)의 뉴스 데이터 트렌드와 실거래가 상관성 분석하기  c. 네이버 API  - 데이터랩 > 검색어 트렌드 결과 가져와 언급 빈도가 높은 매물의 가격 추이 분석  d.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 부동산 정책 중  - ‘4. 정책발표내용 상세 - 주택수요관리, 실수요자 보호’ 등 시장 안정대책 내용 네트워크 분석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과 (a)의 언론사 보도의 관계 분석 | | | |
| 최종 프로젝트 주제 | | | |
|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과거부터 많은 금융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부의 경우 자본의 증가 속도가 일반적인 물가상승보다 압도적으로 커지는 등 투기적 요소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주식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에 대한 감독을 진행한다. 반면 부동산업의 경우 이를 검사 및 감독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로 인해 다른 금융소비자처럼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최근 정부는 가칭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고자 추진 중이다.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투기세력으로부터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러한 투기세력이 미디어 등을 통하여 시장 분위기를 악의적으로 조장한다면, 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막대해질 것이다. 정부의 흐름에 더불어, 소비자가 직접 데이터에 기반한 부동산 분석 정보에 접근한다면 현명한 부동산 매매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은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시장이라고 불린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부동산 소비자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부동산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면, 소비자는 비대칭적인 부동산 정보를 다소 해소하고 올바른 거래행위를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각 뉴스 기사별로 해당 기사가 부동산 추세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작성했는지를 보여주고, 당일 전체 기사의 세분된 긍·부정 비율을 보여준다면, 기사 하나의 이해와 더불어 종합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범주화된 긍·부정에 뉴스 기사를 종합적으로 고루 읽으면서 전반적인 시장 추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할 것 | | | |
| 1. API 아이디 발급 대기중, 뉴스 데이터 정리 2. 모형 구체화 3. 발급 완료 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 모형 구현 4. 서비스 모델 파라미터 튜닝 | | | |